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1월 10일(수) 총 5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해양항만과	담당자	• 해양기획담당 서미숙 ☎440-4821 • 담당자 이근왕 ☎440-482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최초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착공.. 2024년 개관

- 우리나라 해양역사 및 문화를 전시 · 교육 ·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인천이 해양경제 · 문화 중심지로 우뚝 서는 인재 양성의 산실로 도약 기대 -
- 시, 차질 없이 개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 -

수도권 최초의 국립 해양문화시설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인천시 중구 월미도에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10일(수)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일원 월미도 갑문매립지에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배준영 국회의원, 홍인성 중구청장, 주민, 유관기관 등이 참여했다.

인천시가 제공한 월미도 갑문매립지(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총 사업비 1,067억 원, 지상 4층(부지면적 25,810㎡, 연면적 17,318㎡) 규모로 건립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수도권 해양문

화의 대표 거점 시설이 될 전망이다.

해양박물관 건립은 그동안 국립 해양문화시설이 없어 해양문화의 향유 기회가 부족했던 수도권 지역 시민들에게 우리나라 해양역사 및 문화를 전시·교육·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됐다.

2019년 예타 통과 후 그간 건축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최근 2021년 8월 건축허가, 9월말 시공사 선정 등 본격 공사 착수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건립되는 박물관 건축의 외관은 인근 월미산의 능선과 바다의 물결을 이어주는 곡선 디자인으로 활력 넘치는 해양의 이미지를 담아내고, 박물관 내부는 대강당, 상설 및 기획전시 공간, 수장고 및 관람객의 휴식공간으로 구성되며, 관람 중 서해바다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조망할 수 있도록 건축될 예정이다.

박물관의 전시(展示)는 바다의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공간과 시간을 연결한다는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을 주제로 한다.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해양교류의 역사를 소개하는 ‘해양교류사실’ (시간을 잇다), 해운·항만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해운항만실’ (세계를 잇다),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해양문화실’ (삶을 잇다) 및 해양 관련 특별·기획 전시공간인 ‘기획전시실’로 구성된다.

특히, 인천의 고유한 해양역사 및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해 서해안 해

운·항만의 변화와 발전사 기록·전시, 인천 섬의 특성이 담긴 해양민속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무역선인 「영흥도선」, 한국 최초 천일염의 시작인 「주안 염전」의 풍경, 근대 「인천항 갑문」 역사 등이 포함되어 서해안의 장구(長久)한 해양스토리를 보여줄 예정이다.

경제적으로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건립되는 기간 동안 약 1,197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나고, 박물관 개관 이후에 약 990명의 고용유발효과와 연평균 약 1백 20만 명(주 6일 운영기준 일평균 4천명 내외)의 방문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춘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2024년 개관하게 되면 바다를 통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시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대표적인 해양문화 시설로서 자리매김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인천이 명실상부한 해양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서는 인재 양성의 산실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인천시는 박물관이 차질 없이 개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사업개요
2.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배치도 및 조감도

※ 관련 사진은 행사(11시)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추진 배경

- 수도권에는 민간운영 수족관 외에는 국립해양문화시설이 없어 해양 문화향유 기회의 불균형
- 해양역사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교육·체험할 수 있는 국립인천해양 박물관 건립을 통해 수도권 해양문화 확산 거점 마련
- 해양문화 융성과 해양교육 강화로 대국민 해양인식 제고

□ 사업 개요

-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106-7외 7필지(월미도 갑문매립지)
- (사업기간) 2019년 ~ 2023년(5년/ '24년 개관)
- (총사업비) 1,067억원
- (부지/건축연면적) 25,810㎡/17,318㎡(지상1~4층)
- (건폐율/용적률) 22.87%(법정 30%이하)/67.10%(법정 100%이하)
- (용도지역/주차대수) 일반상업지역/198대(법정 174대)
- (주요구성) 전시시설, 교육시설, 관람객 편의시설, 수장시설 등

□ 추진실적 및 계획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실시설계 공모('19.10) 및 시행('19.12~ '21.9)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제작설치 용역('20.3~' 24.1)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21.9~' 23.12)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24. 上 예정)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배치도 및 조감도

